

韓國의 經濟發展과 均衡發展의 問題(2)

一所得分配問題를 中心으로

朱 鶴 中*

<目 次>

- I. 序 言
- II. 所得分配의 時系列變動
- III. 所得分配의 變動要因
- IV. 開發戰略과의 關聯性과 이에 따르는 問題點

I. 序 言

60년대초 以後 우리 經濟의 高度成長에 대하여 世界各國 經濟學者의 耳目이 집중되기 시작하자 그 過程에 있어서 成長果實의 分配에 대하여도 國內外 學者의 관심이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러한 學界의 關心은 1970년대를 前後하여 學界의 反省으로 대두된 「成長의 退位」(dethronement of growth)라는 새로운 學問的 經향에 順응하여¹⁾ 대단히 강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學問的 關心에 대한 實證的 分析의 根據는 階層別 所得分配의 時系列 推計가 된다. 우리 經濟에 관한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는 이를 推計하기 위한 基礎資料에 많은 缺陷이 있어²⁾ 國內 學者에 의한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는 分配問題에 대한 關心에도 불구하고 일찌기 試圖되지 않았고 오히려 外國學者에 의하여 所得分配의 推計結果가 먼저 發表되었으며 그 이후에 國內外學者의 共同研究와 國

* 韓國開發研究院. 이 論文은 韓國經濟學會의 「國際韓國人經濟學者學術大會」(1984. 8. 20 ~ 21, 서울)에서 「韓國의 經濟發展과 開發經濟學」이라는 全體會議의 主題下에 發表되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이러한 反省으로 成長自體를 규정하는 國民所得의 概念을 福祉에 가깝게 修正하려는 接近과, 成長에 따른 分配(redistribution with growth)에서 基本需要充足(meeting basic needs)에 이르는 多樣한 接近이 시도된 바 있다.
- 2) 家計調査를 실시한 이유는 1963년부터 物價指數의 加重値와 平均 生計費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아직도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자료는 조사된 바 없고 농가조사의 分類와도 차이가 나고 있다.

內學者에 의한 여러 推計가 발간되었다.³⁾

여기에서 두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實證의 資料를 기초로 하는 어떠한 經濟分析에 있어서도 分析結果는 그 實證的 根據의 精度와 一貫性 以上の 것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經濟學者를 제외한 대부분은 利用資料의 質的 特性과 그 改善에 주의를 게을리하여 왔다. 이러할 경우 統計機關이 集計한 기초자료나 다른 학자의 推計를 이용하였음을 밝힘으로써 資料上의 問題點을 不問에 불이거나, 이용자료의 誤謬範圍가 分析의 結果를 反證할 수 있는 可能性을 전혀 檢討하지 않는 事例가 허다하다. 더우기 이상한 것은 統計資料의 포괄성과 質의 改善에는 힘쓰지 않고 計量分析 統計技法과 數式을 精巧히 하여 高速의 電子計算機를 活用하는 學問의 努力의 浪費라 하여도 過言이 아닌 것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開發途上國의 不實한 統計를 과감히 다루어 推計하는 學者들은 흔히 開發途上國의 統計實情을 잘 알지 못하는 先進國의 이론바 大家들로서 그 學問의 권위로서 통제상 허구에 대한 學界의 의문제기를 봉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를 최초로 발표한 오시마(Harry Oshima) 教授의 推計도 그러하거나와⁴⁾ 가장 극단적인 事例는 아델만(Irma Adelman)의 것이다. 成長과 分配에 관한 文獻中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引用되고 있는 世界銀行과 서섹스(Sussex)大學校의 공동연구인 「成長에 따른 再分配」(Redistribution with growth)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事例에 아델만교수는 모리슨(Morrison)의 諮問報告를 근거로 하여 1970년 階層別・所得源泉別 五分位 所得分布를 提示하였다.⁵⁾ 우리나라의 家口所得資料의 實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 階層別 및 源泉別 所得分布를 서슴없이 製表하여 公表할 수 있는 果敢性은 學者의 良識을 저버린 처사이며 統計의 허구성을 권위의식으로 강요하는 오만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Harry T. Oshima,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ostwar Experience of Asian Countries," *Malayan Economic Review*, Vol. 18, No. 2-4 (1973).

Irma Adelman, "Redistribution with Growth: Some Country Experience-South Korea," in Chenery,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1974.

Moon-Kyoo Chae, "Income Size Distributio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Working Group Seminar on Income Distribution, mimeo., Manila, Jan. 1972.

Toshyuki Mizoguchi, Do Hyung Kim and Young Il Chung, "Overtime Changes of the Siz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in Korea, 1963~71." *The Developing Economies*, Vol. 14, No. 3 (1976).

4) 오시마는 中央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가 1966년에 실시한 所得과 消費行態에 관한 特別 調査結果로써 한국의 所得分布를 처음으로 추계하였는데, 이에 이용된 特別調査는 都市 799家口, 農村 971家口の 작은 標本數와 조사시기가 1月~3月이라는 계절성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당시 우리나라의 所得分布를 나타내기에 부적합하다.

5) Irma Adelman, "Redistribution with Growth: Some Country Experience-South Korea," in Chenery,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1974.

문제는 이러한 저명한 外國學者에 의한 推計가 다른 學者에 의해 引用되어⁶⁾ 한 國民經濟의 分配狀態가 근거가 희박한 統計에 의하여 學界의 通說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外國專門家에 의한 이러한 推計는 精巧한 計量模型 시뮬레이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 一例로서 고티(S. Gupta)의 長期動態模型에 의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高度成長과 所得均霑은 兩立될 수 있다고 結論짓고 있으나⁷⁾ 이것은 分配構造를 一定한 變異係數(meanvariance ratio)의 假定下에 所得階層區分의 所得額을 不變으로 하였기 때문에 平均所得의 增加에 따라 高所得階層으로 移轉함으로 集中度가 낮아지는 統計上的 허구이다. 만약 平均所得과 分散(variance)의 變化에 따라 所得階層을 區分하는 階層間隔(class interval)을 그대로 變更시킨다면 產業構造 變化가 이 模型의 所得分配 變化를 규정지으며 都市家口의 分配狀態가 農家家口의 그것보다 나쁘므로 우리나라 같은 高度成長下에서는 당연히 分配가 惡化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것은 經濟學者가 콤퓨터와 高等數學을 活用한 精巧한 計量模型의 開發에 대부분의 精力을 불균형하게 쏟고, 그 模型에 利用되는 統計資料의 質的 檢討나 改善에는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거나 利用한 資料의 偏倚(bias)가 計量分析 結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유의하지 않고 그러한 結果에 그럴듯한 我田引水格 해석을 내리는 데 急急하는 傾向이 있다는 점이다.

II. 所得分配의 時系列 變動

上述한 바와 같은 階層別 所得分配推計에 있어서 可用統計資料의 制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金大模教授와 本主題發表者가 우리나라의 所得分配에 대하여 可能性 있는 階層別 所得分布(probable size distribution)의 推計에 임한 것은 어느 外國學者보다도 주어진 자료의 취약점을 감안하면서 精度보다도 일관성있는 分布의 推計로써 우리나라의 所得分配의 變化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한 推計에 있어서도 溝口教授팀이 시도한 바와는 달리 選定된 몇개의 比較年

6) Felix Paukert, "Income Distribution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A Survey of Development: A Survey of Experience," *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 18 (1973).

7) S. Gupta,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 (1976~1990) in an Input-Output Dynamic Simulation Model,"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250 (1977).

〈表 1〉 1982년 全國 및 部門別 所得分配 推計 結果

(단위 : %)

五 分 位 階 層 別	全 國	農 家	非 農 家
1	6.86	7.57	6.68
2	11.94	13.24	11.61
3	16.24	17.64	15.83
4	22.17	23.25	21.59
5	42.99	38.30	44.29
지 니 계 수	0.3574	0.3061	0.3705
十 分 位 分 配 率	18.80/42.99	20.81/38.30	18.29/44.29

資料 : 朱鶴中・尹珠賢, 「1982년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第6卷 第1號, pp. 2-18.

〈表 2〉 階層別 全家口 所得分布와 所得集中度

(단위 : %)

五分位階層別	1965	1970	1976	1982
1	5.75	7.34	5.70	6.86
2	13.59	12.29	11.15	11.94
3	15.53	16.34	15.41	16.24
4	23.31	22.41	22.40	21.97
5	41.81	41.62	45.34	42.99
지 니 계 수	0.3439	0.3322	0.3908	0.3574
十 分 位 分 配 率	19.34/41.81	19.63/41.62	16.85/45.34	18.80/42.99

資料 : 〈表 1〉 參照.

度에 限定한 것은 1980년까지 都市家計調査에 所得上限線이 주어졌고 이것이 간헐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所得分布는 1965년, 1970년, 1976년, 1982년의 4개 比較年度에 대하여 家口主 職種別로서 推計되어 있다.⁸⁾

먼저 1982년 全國 및 部門別 所得分布를 五分位로 나타낸 所得占有率과 代表的分配指標인 지니係數와 十分位分配率에 의한 所得集中度는 다음의 〈表 1〉과 같다. 1982년 全家口의 所得分配狀態는 지니係數로 0.357이며 下位 40% 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과 上位 20% 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을 對比시킨 十分位分配率로는 18.3/43.0으로 推定되고 있다.

農家の 所得分配는 지니係數로는 0.306, 十分位分配率로는 20.8/38.3으로서 全

8) Choo, Hakchung and Daemo Kim, "Probabl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in Korea: Over Time and by Sector,"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Nov. 1978.

朱鶴中・尹珠賢, 「1982년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第6卷 第1號(1984).

〈表 3〉階層別 農家 所得分布와 所得集中度

(단위 : %)

五分位階層別	1965	1970	1976	1982
1	9.05	8.36	6.78	7.57
2	13.58	12.88	12.67	13.24
3	16.79	17.11	16.94	17.64
4	22.56	23.01	22.99	23.25
5	38.03	38.64	40.62	38.30
지니係數	0.2852	0.2945	0.3273	0.3061
十分位分配率	22.57/38.03	21.24/38.64	19.45/40.62	20.81/38.30

資料 : 〈表 1〉 參照.

〈表 4〉階層別 非農家 所得分布와 所得集中度

(단위 : %)

五分位階層別	1965	1970	1976	1982
1	3.24	7.23	5.20	6.68
2	10.81	11.64	10.16	11.61
3	15.65	15.86	14.39	15.83
4	23.35	22.23	21.55	21.59
5	46.95	43.04	48.70	44.29
지니係數	0.4167	0.3455	0.4118	0.3705
十分位分配率	14.05/46.95	18.87/43.04	15.36/48.70	18.29/44.29

資料 : 〈表 1〉 參照.

家口나 非農家の 分配狀態보다 良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非農家の 所得分配는 지니係數로 0.371, 十分位分配率로는 18.3/44.3으로서 農家に 비하여 현저한 集中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所得分配狀態의 變化를 比較年度의 時系列變化로써 살펴보면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全家口의 階層別 所得分配는 지니係數로 1976년의 0.391에 비하여 1982년에는 0.357로 현저하게 改善되었으나 1965년의 0.344와 1970년의 0.332에 비하면 相對的으로 덜 衡平한 것으로 나타났다. 十分位分配率에 의한 時系列變化도 지니係數의 경우와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農家の 所得分配狀態 變化는 〈表 3〉에서 볼 수 있듯이 지니係數로 1976년의 0.327에 비하여 1982년에는 0.306으로 有意하게 좋아졌으나 1965년의 0.285와 1970년의 0.295에 비하면 所得分配狀態가 相對적으로 惡化되었음을 알 수 있고 十分位分配率에 의한 時系列變化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全家口의 所得分配 變化推移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農家の 所得分配狀態는 全家口나 非農家に 비하여 相對적으로 衡平한 分配狀態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農家所得分布의 相對的 衡平도 農家家口比率의 감소 추세로 인하여 全家口의 所得分布에 미치는 영향은 弱化되고 있다.

非農家の 所得集中度 變化推移를 살펴보면 <表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니係數로서 1976년의 0.412에 비하여 1982년에는 0.371로 현저하게 所得分配가 改善되었으나 1970년의 衡平水準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76년에 비하여 1982년 非農家家口의 所得分配를 改善시킨 것은 근로자 가구로서, 지니係數로는 0.309, 十分位分配率로는 21.2/39.4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分配狀態는 所得分配가 비교적 衡平했던 1970년과 비슷한 水準이었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1982년 우리나라의 所得分配狀態는 지니係數로 0.357로서 1976년의 0.391에 비하여 改善된 分配狀態를 보여주고 있으나 1965년의 0.344, 1970년의 0.332에는 못미치고 있다. 즉 最近 우리나라의 所得分配는 70년대 中盤보다는 良好하지만 과거 60년대와 70년대초의 分配狀態보다는 惡化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所得分配 狀態는 國際比較에 있어서 비교적 衡平한 상태로서 많은 先進國과 開發國의 分配狀態보다는 良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⁹⁾

III. 所得分配의 變動要因

經濟變動과 發展에 따라 所得分配 變化를 설명할 수 있는 經濟學의 설명력은 理論的으로나 實證的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와같은 分配問題에 대한 經濟學의 限界를 論者에 따라 表現을 다소 달리하고 있으나¹⁰⁾ 이러한 表現이 전달하는 意味는 自明하다.

所得分配의 變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경제학의 分析의 無氣力에 대하여 하나의 직관적 시사를 던져주는 것은 오시마의 立場이다. 즉 그는 所得分配의 變動은 여러가지 要因과 條件 그리고 그 相互作用이 複合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며¹¹⁾ 限定된 重要變數를 體系化하여 斷定하는 것은 피하고 있다.

9) Choo, Hakchung,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n Park, Chong Kee ed.,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1981, p. 301.

10) 사보타(Gian S. Sabota)는 "Theories of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A Survey," *Th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6, No. 1 (1978), p. 34에서 "所得分配라는 바퀴를 두고 무엇이 軸이고 무엇이 살인지조차 合意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알킨슨(A.B. Atkinson)은 *The Economics of Inequality*, 1975, p. 258에서 "所得分配研究의 대상이 되는 所得概念에 대한 규명도 아직 試圖단계에 지나지 않아 소득분배이론의 定立은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1) Harry T. Oshima, *op. cit.*

變動週期가 서로 다른 많은 長短期 要因이 영향력과 그 方向이 다른 벡터(vector)로서 작용하여 所得分配의 時系列 變化가 發生하며 그 變化의 결정적 要因은 國民經濟의 時代的 特性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하겠다.

먼저 우리나라에 있어서 所得分配 狀態와 變動에 대하여 留意해야 할 것은 今世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이한 歷史的 背景으로 인한 人的·物的 富의 蓄積과 分配狀態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특수한 歷史的 理由로 因하여 光復 以後 60년대초까지 일어났던 經濟·社會의 變化로 因하여 人的·物的 資本分布의 平準化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¹²⁾ 60년대초까지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衡平造成的인 歷史的 特殊性으로는 日本의 植民地政策下에서 韓國人의 人的·物的 資本의 蓄積이 미진하였고 해방이후 각종 教育機會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戰時 및 戰後 混亂期에 資質本位の 進학기회가 주어졌고 公開試驗을 통한 社會進出機會가 開放되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日本人 所有資產의 國有化와 두차례에 걸친 農地改革, 6.25動亂의 피해, 農漁村 高利債整理, 不正蓄財還收 등으로 資產의 再分配를 結果함으로 因하여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所得分配의 相對的 衡平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解釋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所得分配에 有利하게 作用한 이러한 歷史的 要因은 60년대 後半부터 점차 그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었다. 즉 非現實的인 金利의 재정투융자와 低利의 外資導入은 企業主에게 金利差에 의한 資本蓄積을 가능케 하였고, 1973년 8.3措置의 高利債凍結은 1억원 미만의 少額債權者 資產을 企業에 有利하게 再分配하는 結果가 되었다. 또한 不動產 價格의 폭등은 재산소득의 집중을 加速化하였으며 入試競爭과 再修生문제는 低所得階層 子女의 進학기회에 不利하게 作用함으로써 과거의 衡平造成的 歷史的 要因을 크게 蠶食하는 結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所得分配의 歷史的 長期要因은 所得分配에 급격한 變動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構造的 阻害要因으로 작용할 것으로 豫想된다. 所得分配 變動의 構造的 要因으로는 產業構造的 變化에 따른 職種別 家口構成, 學歷別 또는 직종별 임금격차, 都農間 所得差異 등의 變化를 들 수 있다.

可用資料가운데 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는 構造的 要因을 요약하면 <表 5>와 같다. 먼저 經濟成長에 따라 家口主 職種別 家口構成은 1965년 農家와 非農家 比率이 각각 55.5%와 44.5%에서 1982년의 農家比率 22.5%와 非農家比率 77.5%로

12) 朱鶴中, 「分配의 相對的 衡平性과 歷史的 背景」,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下)』,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49, 1982.

〈表 5〉所得分配에 影響을 미치는 構造的 要因

構造的 要因	1965	1970	1976	1982
〈家口構成〉				
農家比率	55.5	45.7	36.5	22.5
非農家比率	44.5	54.3	63.5	77.5
(勤勞者家口比率)	(32.3)	(35.2)	(41.2)	(47.3)
〈賃金隔差〉				
職種別 賃金隔差(行政管理職 平均給與/全職種 平均給與)	—	270.9 (1971년)	343.6	254.8
學歷別 賃金隔差(大卒者 平均給與/國卒者 平均給與)	—	330.7 (1971년)	425.4	347.0
〈失業 및 不完全就業〉				
農業 失業者比率	3.1	1.6	1.0	0.9
不完全就業者比率(주당 18시간 미만)	6.2	4.7	2.0	0.3
非農業 失業者比率	13.5	7.4	6.3	6.0
不完全就業者比率(주당 18시간 미만)	1.3	0.8	0.3	0.1
〈都農間 所得隔差〉				
都市勤勞者 家口平均所得에 대한 農家平均所得比率	99.7	67.1	100.4	103.2

資料：朱鶴中・尹珠賢, 「1982년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第6卷 第1號, p.13.

현저한 變化를 招來하였다. 이러한 큰 變化는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대폭적인 增加와 勤勞者家口의 꾸준한 增加로서 說明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職種別 家口 所得分布의 相對的 衡平性을 감안하면 다른 모든 變動要因에 變化가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家口 構成比의 變化만으로도 全家口의 所得分配은 惡化되는 結果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賃金統計資料가 1971년 이후에 集計되어 있어 1965년에 있어서 賃金隔差에 대하여 言及할 수 없으나 全職種 平均給與에 대한 行政管理職 平均給與比率로 나타난 직종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1971년에는 270.9이던 것이 1982년에는 254.8로 낮아졌으며 이는 下厚上薄의 給與調整結果인 것으로 해석된다.

學歷別 賃金隔差도 1976年頃에 그 頂點에 이르러 職種別 賃金隔差의 動向과 같은 趨勢를 나타낸다. 賃金隔差는 勤勞者 家口所得分布의 變化에 決定的인 作用을 하고 있다.

1965년 以前과 1970년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所得分配에 큰 要因으로 作用한 것은 失業者比率, 특히 非農業 失業者比率이었다. 失業者比率과 不完全就業者比率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여서 所得分配의 全般的인 改善에 좋은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表 6〉所得分配에 影響을 미친 短期的 要因

(단위: %)

	經濟成長率	1人當 GNP 增 加 率	都 賣 物 價 上 昇 率	小 賣 物 價 上 昇 率	金利水準 (一般商業 어음 割引率 基準)
1976	14.1	12.3	12.1	15.3	{ 15.5(75. 10) 18.0(76. 8)
1977	12.7	11.0	9.0	10.2	16.0~19.0(77. 7)
1978	9.7	8.1	11.7	14.4	19.0(78. 6)
1979	6.5	4.9	18.8	18.3	19.0(79. 9)
1980	-5.2	-6.7	38.9	28.7	{ 25.0(80. 1) 20.0(80. 11)
1981	6.2	4.6	20.4	21.3	{ 19.0(81. 11) 17.0(81. 12)
1982	5.6	4.0	4.7	7.2	{ 16.0(82. 1) 10.0(82. 6)

資料: 韓國銀行, 『調査統計月報』 및 『經濟統計年報』, 當該號.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의 所得隔差를 살펴보면 都市勤勞者家口 平均所得에 대한 農家平均所得比率로서 1976년의 100.4에서 1982년의 103.2로 農家所得이 都市勤勞者家口の 平均所得을 계속 上廻하고 있다. 이러한 農家와 非農家間 所得差異의 緩和는 所得分配의 改善에 좋게 作用할 것이 기대되지만 農家の 家口比率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로 인하여 오히려 전체적인 所得分配에 미미하게 作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構造的 要因外에도 80년대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所得分配에 影響을 미친 短期的 要因을 몇가지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短期的 變動要因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表 6〉과 같이 相對的 低成長, 前例없던 物價安定, 銀行金利引下 등을 特記할 수 있다.

제 2 차 석유파동의 여파, 1979년의 社會的 不安, 1980년의 凶作 등으로 인하여 1980년에는 負의 經濟成長을 기록하였고 이 해를 前後하여 韓國의 低成長인 年 약 5~6%를 나타내었다. 低成長 및 負의 成長期에는 利潤 및 財産所得이 減少하고 雇傭機會가 縮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같은 特殊한 勞使關係下에서는 不況이라 하여도 근로자의 休職이나 解雇를 강요하지 않고 또한 不況으로 인하여 財産所得이 減少함으로써 所得分配에 衡平造成的 影響을 미쳤을 것이라는 假說을提起해 본다.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우리 經濟는 1982년에 이르러 都賣物價上昇率 4.7%, 小賣物價上昇率 7.2%라는 類例없던 物價安定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1980년의 38.9%와 28.7%, 1981년의 20.4%와 21.3%에 비하면 대단한 安定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인플레이션下의 財産所得 增大를 억제

시켜 줌으로써 所得分配의 衡平造成的 要因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0년 1월을 絶頂으로 하여 一般 商業어음 割引率 基準으로 年 25%에 달하였던 金利가 1982년 1월에 年利 16%의 水準으로 調整되고 6월에 다시 10% 水準으로 大幅 引下됨에 따라 財産所得의 相對的 減少를 誘發하여 所得分配에 衡平造成的 影響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또 하나의 假說을 提起한다.

IV. 開發戰略과의 關聯性和 이에 따르는 問題點

以上과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所得分配의 變化要因을 살펴볼 때 定說化된 理論의 分析體系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現時點에서 60년대초 이후의 所得分配의 變化를 우리가 추구하여 온 開發戰略과 관련지워 分析을 試圖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課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어진 制約 가운데 最善을 구하는 것이 經濟學의 要諦이며 經濟學徒가 할 수 있는 機能이기 때문에 不完全하나마 굵은 테두리에서 分配의 變化와 開發戰略과를 관련지워 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의 開發戰略은 이른바 對外指向의 工業化過程으로서 70년대초까지 勞動集約的 產業에 의하여 主導되다가 그 이후 성급한 重化學工業 育成으로 特徵지을 수 있다. 輸出主導의 工業化過程을 통하여 括目할 것은 發展初期 過剩人口와 過剩勞動力 供給으로 인하여 非農業部門이 안고 있던 엄청난 失業者와 不完全 就業者에게 雇傭機會를 제공함으로써 所得分配을 改善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分配에 대한 雇傭機會 擴大效果는 70년대초까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不完全就業者의 減少가 衡平造成的으로, 產業構造의 變化와 賃金差異의 擴大가 衡平沮害의 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로, 工業化에 따라 產業構造의 變化가 國民經濟의 重心(the center of gravity)을 農業에서 移行시킴에 따라 土地所有 上限制로 인하여 相對的 衡平을 나타내는 農家部門의 比重減少와 相對的으로 所得集中度가 높은 非農家 比重의 增大로 다른 모든 條件이 同一하면 所得分配이 점차 惡化되는 傾向을 나타내게 된다.¹³⁾

세째로, 70년대초 以後에 力點을 둔 성급한 重化學工業 推進과 이에 따른 財政金

13) 이에 대하여 農家支援을 擴大하여 都農間 所得差異를 제거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筆者가 검토한 바로는 農家和 都市勤勞者 家口間의 소득격차는 1972년 이후 有意한 정도가 되지 못하며 農家에 대한 각종 支援은 農家の 內部的 分配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미있는 結果라고 할 수 없다.

朱鶴中, 「都·農間 所得隔差의 再考」, 『韓國開發研究』, 第3卷 第3號, 1981.

朱鶴中·韓成德, 「農業租稅와 補助金의 所得再分配效果」, 朱鶴中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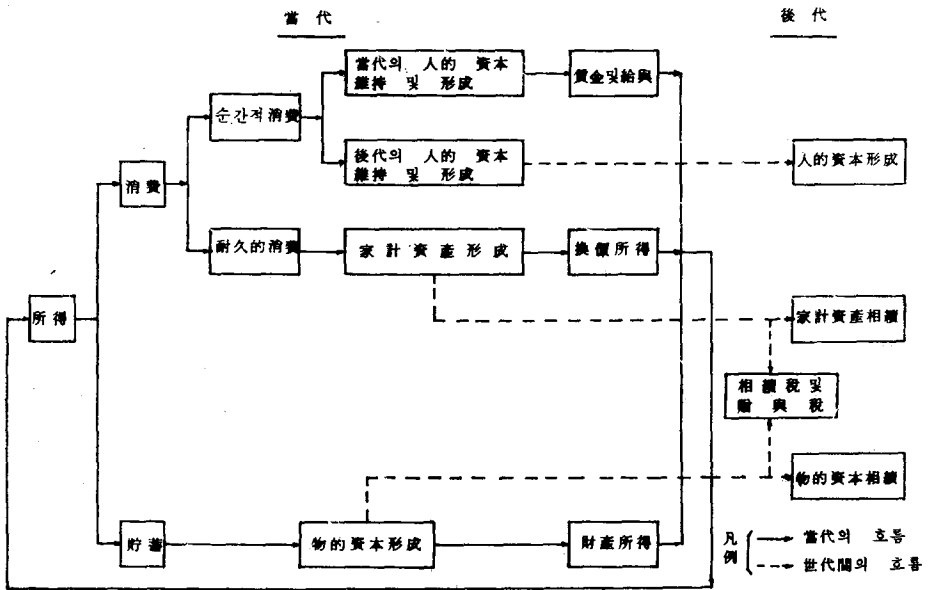
融 등의 政策支援은 大企業의 急成長과 中小企業의 相對的 위축을 초래하여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와 全家口의 所得分配를 惡化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더우기 이러한 大企業의 急成長이 극심한 만성 인플레이션에서 이루어져 實質金利가 負인 狀況 아래 그 담보로서 不動產을 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不勞所得과 富의 蓄積이 偏重되게 이루어졌다.

네째로, 輸出主導型 開發戰略은 限定된 投資財源을 輸出部門에 우선하여 集中的으로 分配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可用財源의 偏重과 여기에 內包된 엄청난 증여분(grant element)의 귀속을 결과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貸出에 있어서 주로 不動產을 담보하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다. 限定된 土地라는 供給上的 限界가 있고 開發과 더불어 集積의 便益이 유발하여 地代가 上昇하는 이유도 물론 있으나 부동산 담보제도는 유리한 金融惠澤을 받기 위한 要件으로서 土地의 需要를 자극하고 이에 따라 地價가 急騰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開發過程에서 나타난 財政赤字와 인플레이의 영향이다. 80년대초에 와서 成就한 安定基調은 인플레이에서 오는 所得의 逆進의 分配效果를 除去하기는 하였으나 建國以後 80년대초에 이르는 期間에 定額所得者에게 不利益을 주고 財産所得者에게 대단한 利益을 안겨 준 것을 바로 잡는 課題가 남아 있다. 더우기 이러한 現實이 상술한 바와 같은 편중된 資金分配과 不動產擔保와 連繫되어 한층 더 富와 所得의 集中을 加速하였음을 否認할 수 없다.

所得分配와 관련지워 우리나라의 經濟發展과 더불어 隨伴하는 問題點은 이를 보는 視角에 따라 여러가지 指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그 중요한 몇가지를 重點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0년 이상의 高度成長過程에서 무엇보다, 重要視되는 것은 成長의 結果 國民生活水準의 全般的인 向上으로 60년대초의 「단벌紳士」, 「보리고개」와 같은 가난을 상징하던 用語가 오늘날 意味를 잃었으나 이와 아울러 높은 社會移動의 可能性을 나타내던 「3代 富자가 없다」든가 「가난한 집 아이가 工夫를 잘 한다」라는 庶民들의 주고 받던 말이 그 意味를 거의 잃고 있다는 點이다. 지난 20餘年間の 蓄積된 個人所有의 富는 엄청나 단순한 銀行金利로서도 平生 못다 쓸 所得을 享有하며 <그림 1>과 같은 相續過程이 現實으로 나타나고 있다. 問題는 個人의 成就動機를 阻害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또한 資本主義의 利點을 살리는 範圍內에서 功利主義의 衡平과 調和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圖表에 따라 두가지 接近이 가능한 바, 첫째는 有限한 生命이 終息될 때 相續稅 및 贈與稅로서 物的 資本分布의 平準化를 期하며, 둘째로 貧困이 相續되지 않게 後代의 人的 資本形成을 財政으로 選別的 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世代間 富의 形成과 移轉



세째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70년대 중반이후 發展戰略의 一環으로 社會開發에 力點을 둠에 따라 福祉와 衡平에 대한 國民의 期待水準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點이다. 이에 따라 國民의 기대수준에 비추어 所得分配의 改善이 지니는 意味가 低評價되는 心理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所得分配의 改善은 景氣, 雇傭條件, 農業의 作況 등 수많은 短期的 要因은 물론 私有財産과 같은 資本主義의 본질과 生物學的 遺傳, 人力開發, 財産形成 및 相續 등 많은 長期的 要因이 복합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經濟社會의 進化過程에서 短期나 中期에 實現할 수 있는 所得分配의 改善이 같은 期間에 急昇하는 衡平의 期待水準을 充足시키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國際比較上 分配의 相對的 衡平을 유지하면서도 國民間의 違和感과 不滿을 除去하기 어려운 問題를 유발하게 된다.

네째로 여기에서 分析된 바와 같은 所得分配 研究結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國民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點이다. 그 理由는 國民이 피부로 느끼는 所得分配과 計測分析된 所得分配間의 乖離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理由의 妥當性은 인정되나 그 代案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可用資料의 制約을 고려하면 대단히 비현실적인 完全主義者의 我執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所得分配에 대한 관심을 所得 그 자체의 分布보다 이 代變數가 나타내는 生活單位로서 家口의 厚生 및 生活水準差異에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分配에 있어서는

投機利潤 및 不當所得 등 地下經濟性 購買力의 支配까지 포함한 廣義의 所得이 推計와 分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이용된 定說의 國民所得概念의 課稅前 家口所得은 分配論의 現實의 本質을 나타내는 데 미흡하다. 이 문제점은 本人도 共感하여 所得分配研究에 있어서 이른바 「購買力所得」의 概念的 重要性을 이미 강조한 바 있으나¹⁴⁾ 이를 포괄한 經濟理論의 再定立과 統計資料의 不備 등 根本的인 制約으로 이에 대한 의미있는 試圖은 아직도 遙遠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問題의 現實의 打開方案은 地下經濟要素를 陽性化하여 不當所得의 餘地를 除去함으로써 皮부로 느끼는 分配과 計數上的 分配와의 乖離를 縮小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短期的으로는 課稅行政의 強化로써 不當所得의 陽性化를 촉진,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分配問題의 要諦가 部門間的 問題라기 보다는 部門內의 不均衡에 있음에 비추어 이를 어떻게 打開하여 所得分配의 改善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點이다.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所得分配에서 零細自營業者를 비롯하여 中小企業家は 물론 大企業家를 포함하며 勤勞者家口의 所得分布도 未熟練工家口에서 專門人家口까지 包括하게 된다. 따라서 社會의 寄與에 充分한 報償을 認定하고 이를 貯蓄, 增殖하는 資本主義의 美德을 장려하는 範圍內에서 不平等의 容認度(tolerable level of inequality)에 대한 國民的 合意가 定立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不平等의 容認度에 대한 國民的 合意가 이루어지면 그 以上の 不平等에 대하여는 稅制 및 각종 政策手段으로 이를 除去하기 위한 과감한 政策的 努力을 構想,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4) 朱鶴中, 「所得分配研究에 있어서 所得의 概念과 決定要因」, 朱鶴中編,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30, 1979.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the Problem of Balanced Development (2): In the Aspect of Income Distribution

Hakchung Choo*

Summary

The remarkabl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since the early sixties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economists throughout the worl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Korea's growth performance, how income distribution has changed over the period of rapid growth is an equally important consideration. Earlier favorable findings from empirical evidence on th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for Korea, as in many instances of empirical studies for developing countries, were attempted by a few relatively well-established economists from advanced countries. This evidence has been generally accepted by readers with few objections, mainly because of the lack of data and the established reputations of the researchers.

This paper presents alternative estimates of size distribution of income of Korea for the selected bench-mark years of 1965, 1970, 1976 and 1982. These bench-mark years were selected by fully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available household income surveys. Attempts are also made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of existing surveys by drawing from relevant income data available. Consequently, the resulting estimates may not reflect a completely desirable degree of accuracy due to the implicit deficiencies of the survey, but are 'probable' and consistent ones which trace changes of income distribution over time.

The resulting estimates of all households confirm relative equity i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during the period under consideration in terms of representative distributive measures as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from 1965 to 1970, income distribution improved rather significantly. This tendenc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then reversed itself up to 1976, which marked the highest inequality of the four years under consideration. The 1982 estimates demonstrate another slight reversal toward improved distribution.

Th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farm household is far more equitably distributed than that of non-farm households throughout the period. However, the farm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itself shows a tendency of gradually worsening over time until 1982, when it improved slightly. The non-farm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repeatedly fluctuates from the worse to the better, while consistently showing a higher degree of the income concentration than the farm households. The 1982 non-farm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is relatively better than those of 1965 and 1976, but is worse when compared to that of 1970.

Without the benefit of deterministic theories of income distribution, it is difficult to provide an explanation for these changes by sector and over time. However, in the terminology of Harry T. Oshima, there are a bundle of sources affecting income distribution. To begin with, Korea's history until around 1960 was deeply affected by an oppressive colonial heritage and a series of reforms, incidents, and the destruction of the Korean war. These factors, among others, influenced favorably the initial distribution of income due to the relatively even distribution of income-generating wealth, both human and material. The changes of household composition over time are generally attributed to the worsening of income distribution due to the reduced number of farm households, which maintain relative equity as compared to other households.

The favorable change of income distribution from 1965 to 1970 is primarily attributable to the sharp reduction of non-farm unemployment with few changes in wage and salary differentials. The worsening of income distribution in 1976 is accounted for notably by the significant widening of wage and salary differentials by occupation and by level of education, without much reduction in unemployment. This trend of widening wage and salary differentials reversed from 1976 to 1982, reaching about the level of 1971 in 1982.

In addition to these long and mid-term sources of change, there were three short-term developments which may have favorably affected the 1982 income distribution figures. First, the growth rate of the economy since 1978 has averaged about 6

percent yearly except for 1980, without accompanying increases in unemployment and significant wage cuts. It is hypothesized here that higher income brackets suffered during this period of relatively mild growth. Second, price stability was achieved in 1982, which is generally recognized as having an equity-promoting effect. Finally, but not least important, the nominal discount rates significantly declined from 25 percent per annum in 1980 to 10 percent in 1982, which would affect current non-wage incomes. All of these factors are considered to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for 1982.